

"TV Land" 혹은 디스토피아

정정화의 이번 사진 작업들은 한국의 중산층 아파트의 거실 풍경을 담은 것들이다. 거실의 정면 여러 기물들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담은 이 풍경에서 그녀는 거의 예외 없이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TV를 주목하는데(그녀의 이번 작업들의 제목은 "TV Land"이다), 그 TV는 마치 신하를 거느리듯 여타의 기물들을 거느리고 이 풍경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또한 이 TV의 화면 아닌가 싶다. 이 화면에는 거실 뒤편의 풍경이 마치 그 화면이 거울의 구실이라도 하는 듯 정확한 비례로 담겨져 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 사진들은 컴퓨터를 통해 수정되고, 합성된 것이라고 한다. 아마도 각각의 기물들이 좀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수정이 가해진 것 같고, 또 앞서 말했듯 TV 화면의 풍경은 합성된 것이다.

나는 이 풍경을 보고, 찍고, 합성하고, 수정하면서 그녀가 가시화하려 한 것이 무언가를 생각해 본다. 사실 사진 속의 풍경들은 내게는 너무도 친숙한 것들이다. 하지만 처음 이 사진들을 보았을 때, 나는 이 사진들이 어떤지 번쩍이고 있다고 느꼈으며, 단순히 물리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 그 번쩍임이 내 마음 속 깊은 곳의 상처를 건드리고 있음을 감지했다. 뭐랄까? 언젠가 보았던 17세기 서구의 부르주아의 거실 풍경을 찍은 사진의 느낌을 받았다고나 할까? 아마도 나는 부끄러움을 느꼈던 듯하다. 사실 사진 속 풍경들은 너무도 획일화되어 있었고, 기물들의 배치는 마치 관료들이 늘어선 듯 권위적이었으며, 일상의 구체적인 자연스러움과는 유리되어 마치 누구에게나(아니면 스스로에게) 보이기 위해 전시된 듯한 느낌을 주었다.

글쎄 그녀가 나와 같은 느낌을 받고, 이 풍경을 주목했는지는 모르겠다. 혹시 "TV 나라" 혹은 "TV의 땅" 정도로 번역될 수 있을 제목을 통해 그녀 또한 이러한 살풍경에 연민과 아이러니를 표명한 것은 아닐까? 어쨌든 그녀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지금 이 곳의 삶이 사물의 체계에 의해 점령당한 모습 아니었나 싶다. 가만히 사진들을 바라보면 그 속의 사물들 하나 하나는 모두 번쩍인다. TV이건, 받침대이건, 오디오 세트건, 아니면 책장이건, 그것들은 모두 그 자리에 곧추 서서 당당하게 각자를 주장한다. 그 물건들의 위용. 나는 문득 어지러움을 느낀다. 여기서 사람의 흔적은 사물들의 배열에 부수적이다. 혹은 사물들의 광택에 흡수된다. 게다가 TV의 화면과 그 곳에 비치는 영상은 더욱 흥미롭다. 이 화면에 비친 거실의 뒤편 장소는 원래 사람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곳이다. 하지만 그 곳에 존재하는 것은 거의 예외 없이 텅빈 소파 혹은 살핀 소파뿐이다. 그 곳은 비어있다. 그리하여 여겨서 사물들을 바라보는 것은 사물들이며, 이들은 서로를 반사한다. TV가 재현을 위한 사물, 재현의 기계라면, 이제 이 곳에서 TV는 사물들 혹은 사물들의 관계가 스스로를 증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장소가 된다. 그리하여 이 사진들 속 집안의 거실 중앙에 권력자이자 주인으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TV는 이 사물의 세계를 완성한다.

오늘날의 세계가 이렇듯 사물의 체계 혹은 더 나아가 시물라크라의 체계로 뒤덮여 있다는 것은 많은 이론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이다. 또한 팝아트이래 많은 작업들이 이렇듯 사물의 체계로 이루어진 세계의 다양한 모습들을 재현해 왔다. 하지만 그녀의 작업에서 드러나는 이 곳의 모습

은 또 다르다.

사실 한국의 현대화 과정은, 식민적 현대화 과정을 경험한 곳들이 대체로 그러했듯, 극도의 사회 경제적 혼란과 격동, 그리고 특히 문화적 충돌과 단절, 혼성을 수반했다. 단지 100년여의 기간 동안에 한국은 유교의 원리에 따르는 극동의 “은둔의 나라”에서 세계 무역 거래량 10위 권을 넘나드는 ‘현대 국가’ 중 하나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급속도로 진행된 개발 지상주의적 정책과 실행을 통해 이 곳의 일상 문화는 그 어느 곳보다 극단적으로 자본과 상품의 냉혹한 논리에 포섭되었으며, 식민화되었다.

나는 이 사진들에서 차이를 읽는다. 이 사진들의 풍경은 가볍기보다는 무거우며, 세련되기보다는 거칠기 그지없다. 여기에서 나는 문화의 충돌과 단절을 충돌과 단절의 양식으로서 돌파할 수밖에 없었던 극단화된 혼성 문화의 흔적을 읽는다. 또한 그 충돌과 단절을 가로질러 관찰되어야 했기에 더욱 강력하고 획일적일 수밖에 없었던 사물의 체계를 읽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곳은 어디인가?

이 영 옥/ 미술평론가